

말씀의 샘

이기적인 신앙과 자원하는 신앙 <디모데 후서 3:1~7>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인간의 특징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을 두고 말한 것이지만 그들의 모습은 바로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있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2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첫번째로 등장하는 말세형 인간의 핵심 특징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서부터 모든 신앙적인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특징은 “돈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는 자의 가장 중요한 DNA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디모데후서 3:7에서 귀결됩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사야 14:12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계명성이 지칭하는 존재는 다름 아닌 죄의 아비 마귀요 사탄입니다. 그가 어떻게 타락한 천사가 되었고 죄의 시작자가 되었는지를 간략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내가”가 한글로는 3번** 등장하지만, **영어로 “I will”은 무려 5번**이나 등장합니다. 한 마디로 이기주의는 죄의 핵심이요, 본질일 뿐만 아니라 죄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나봅니다.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한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첫째, 이기적인 마음은 신앙(교회)의 암과 같습니다.

이기주의는 자기 세계 안에 갇혀있고 조금이라도 자기 것을 잃을까봐 불안해 합니다. 얼마나 계산적인지 모릅니다. 무엇을 담으려면 그곳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크신 뜻과 은혜를 채울 공간이 좁을 뿐만 아니라 그 좁은 공간마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절대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뒷새가 이기주의에서 생기며, 교회에서 기득권, 자기 소리, 자기중심적 의견이 발생하여 분위기를 삭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타인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때로는 새신자가 와서 은혜 받았다고 하고, 간증하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새신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잘 대해주는 것을 싫어합니다. 늘 자기만 관심 받고 싶지 그 애정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새신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며 섬길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청년들이 진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비전을 구할 때, 왜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중심적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나중에 그걸 깨닫고 다 내려놓고 자기 중심적인 마음 다 비운 뒤에 하나님도 뭘 원하시냐고 물을 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비전을 발견하는데 걸림돌은 역시나 이기주의입니다. 사업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자기만 먹고살려했다면 총리될 필요도 없고, 수많은 곡식을 저장한 창고의 축복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업을 위해,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데 자기를 위한 욕심으로 구할 때 어찌 하나님 스케일에 맞게 응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의 축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4:9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10**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무조건 복을 구하였고 그 복을 허락받았다는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의 기도가 하나님앞에 흡족한 기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만 축복이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복을 주셔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 안에 속한 모든 이가 다 복을 받기를 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이타적인 비전, 이타적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기도, 즉 일천번제를 드린 후 지혜를 구하는 기도에서 우리가 또 발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3:9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0**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들을 하나님 뜻대로 잘 통치하고 판결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한 이타적인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입니다. 암을 제거해야 새 살이 돋고 성장합니다. 이기주의 암을 제거해야 성장하고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성장과 하나님의 축복이 멈춘 이유를 오늘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기적인 마음은 자원하는 신앙을 말살시킵니다!

목회자의 마음을 허탈하게 만드는 성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이기주의적인 성도, 그래서 아무 것도 자원하지 않으려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 같은데, 너무 이기적인 마음으로 뚫돌 뭉쳐서 전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원하는 마음을 발견할 수 없을 때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앞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발견했을 때의 마음이 이러하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 크신 주님의 대속하신 사랑을 받고, 날 대신해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그 사랑을 받고도 너무도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훗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무어라 말씀하실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원함이 없고 여전히 자기만 생각한다면 확실히 병든 신앙입니다. 말기암 환자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은게 없고 아무것도 먹고 싶은게 없다면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시한부암환자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일주일애 겨우 예배드리러 한번 오고, 목사님이 다른 무언가를 시킬까봐 별별 떨고 눈치를 본다면 영적인 말기암 환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언가를 좀 부탁하고 싶고 말했더니 그 다음 주부터 부담스럽다고 교회를 안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죽은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는 사해바다와 갈릴리바다가 있습니다. 사해바다는 훨씬 갈릴리바다보다 크고 자원이 풍부합니다. 여기저기서 받아들이는 물줄기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사해바다는 그 명칭 자체가 죽은 바다입니다. 받아들이기만 하지, 전혀 흘러 보내질 않습니다. 흘러보내지 않으니까 썩어가고 죽는 것입니다. 반면 갈릴리바다는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요단강을 통해서 계속 흘러보냅니다. 그래서 늘 생명이 풍성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이기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안의 영이 삽니다.

마태복음 22:3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40**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신의 몸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자기 몸은 세상 사람도 아깁니다. 모든 죄인의 본능입니다. 자기 몸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전체의 계명을 이루는 핵심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2016. 6. 12 주일 예배 이 강화 목사

2016. 6. 19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구수진 사모)

성 경 봉 독 ----- 누가복음 5:1~11

말 씬 선 포 ----- 이 강화 목사

"내게 말씀하소서"

축 도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예 배 안 내

주일 예배 :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 : 수요일 오후 7:30

금요 예배 : 금요일 오후 7:30

새벽 기도 : 화요일~토요일 오전 6:00

